

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 민족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

김 현 옥 추 상 열 임 성 문[†]
충북대학교

Berry(1997)가 제시한 문화적응전략에서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라고 보고된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달리 근래 몇몇 연구들에서 동화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응적임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류사회가 이주자들에게 주류사회에 동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주자가 주류사회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동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일 것이라고 추론하고, 이 추론을 한국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조선족 유학생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한족 유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해 보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조선족 유학생 63명과 중국한족 유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전략, 심리적 안녕감, 우울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4(문화적응전략)X2(민족유형) 이원변량분석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모두에서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예측대로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를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낮은 우울을 보였다. 그러나 통합을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높은 우울을 보였다.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예측대로 통합을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낮은 우울을, 주변화를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높은 우울을 보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중국 유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 방안에 대한 함의를 기술하였다.

주요어 : 문화적응전략, 민족유형, 심리적 안녕감, 우울

* 이 연구는 임성문 교수의 지도하에 작성된 2012년도 김현옥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임성문,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개신동)

Tel : 043-261-2190, E-mail : sungmoon@chungbuk.ac.kr

한국정부는 국내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국가위상을 제고하며 우수 해외 인적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2004년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Study Korea Project)을 수립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13년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5년 22,526명에 비해 세배 이상 증가한 85,923명에 이르렀다(교육부, 2013).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적응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학생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언어상의 어려움, 재정적인 문제,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의 적응, 사회적 지지부족, 인종 차별, 향수병, 자존감과 행복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저하, 학교생활 부적응, 차별감, 열등감, 우울, 불안, 약물남용, 신체화 증상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유학생들의 중단이 보고되었다(경수영, 장수미, 2010; 김민선, 석분옥, 박금란, 서영석, 2010; 임수진, 한규석, 2009; 진미경, 조유진, 2011; Mori, 2000; Raffaelli, Torres Stone, & Iturbide, 2007; Yeh & Inose, 2003).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낙관성, 사회적 지지, 대처양식, 완벽주의, 스트레스, 외로움, 차별감, 대인관계 문제, 유학기간, 문화적응전략 등이 연구되어 왔다(김민선 등, 2010; 김후조, 2011; 송원영, 리난, 2008; 임수진, 한규석, 2009; 장준량, 2009; 정진경, 김재우, 2005; 진결, 2010; 진민진 등, 2011; 최금해, 2008; 황해연, 2007; Chen, Mallinckrodt, & Mobley, 2002; 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Li & Gasser, 2005;

Misra & Castillo, 2004; Raffaelli et al., 2007). 이 중 문화적응전략은 개인이 다른 문화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때 사용하는 적응전략으로(Berry, 1997), 이민자와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고, 문화 간 접촉과 교류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Berry(1980, 1997)에 의하면, 문화적응전략은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와 새로운 사회(이하 주류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수용할 것인가의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수용하는 통합,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은 유지하지 않고 주류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수용하는 동화,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은 수용하지 않는 분리, 모국과 주류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모두 포기하는 주변화로 분류될 수 있다.

문화적응전략과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적응전략 중 통합을 사용하는 유학생들이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대학생활 적응, 탄력성 건강상태, 가장 낮은 우울을 보였고 주변화를 사용하는 유학생들이 가장 낮은 적응 수준을 보였으며, 동화와 분리를 사용하는 유학생들은 중간 정도의 적응 수준을 보였다(서선자, 2010; 손한나, 이영호, 2011; 장혜경, 한수경, 양남영, 2010; Berry & Sabatier, 2009; Kotic, Mametti, & Sam, 2006; Zheng, Sang, & Wang, 2003).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통합을 사용하는 이민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심

리적 안녕감, 건강, 자존감, 생활만족도, 학교 적응, 지역사회적응, 가장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였고, 주변화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이 가장 낮은 적응을 보였으며, 동화와 분리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은 중간 정도의 적응 수준을 보였다(Berry & Kim, 1988; 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Berry & Sabatier, 2009; Curran, 2003; Kosic, Mametti, & Sam, 2006). 이와 같이 유학생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고 주변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Pfafferoth와 Brown(2006)과 Kunst와 Sam(2013)은 지금까지의 문화적응전략 연구 대부분이 이주자의 문화적응전략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고 비판하며, 주류사회의 사람들이 이주자에게 기대하는 문화적응전략도 그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Pfafferoth와 Brown(2006)은 터키, 유고슬라비아, 아랍국가, 폴란드에서 독일로 이주한 노동자의 청소년자녀를 대상으로, 얼마나 모국 문화와 정체성 유지를 원하는지와 얼마나 독일 문화와 정체성 수용을 원하는지에 대해 자신과 독일사회 사람들의 관점에서 각각 응답하도록 하고, 자신과 독일사회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국 문화와 정체성 유지, 독일 문화와 정체성 수용 각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주류사회 사람들이 더 적게 원한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unst와 Sam(2013)에서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독일계 터키인, 프랑스계 마호라비인, 영국계 파키스탄인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은 통합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노르웨이

사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동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지각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류사회의 사람들이 이주자에게 기대하는 문화적응전략과 이주자가 사용하는 문화적응전략 간에 차이가 클수록 이주자의 적응 및 심리적 문제가 커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류사회의 사람들이 이주자에게 기대하는 문화적응전략이 이주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몇몇 연구들에서 주류사회의 사람들이 이주자에게 주류사회 문화에 동화내지 흡수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주자가 가지고 있는 모국 문화가 주류사회의 문화와 유사한 경우에 동화의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적응적일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예를 들어, Kosic(2002)은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크로아티아인과 폴란드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전략과 심리적 및 사회문화적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통합과 대등하게 동화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의 심리적 및 사회문화적 적응 수준이 분리와 주변화를 사용하는 이민자의 적응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sic(2002)은 이탈리아 사회는 이민자가 이탈리아 사회에 동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탈리아에 들어온 크로아티아인과 폴란드인 이민자의 신체적 외양과 문화가 이탈리아인의 외양 및 문화와 매우 유사하여 이탈리아 사회에 흡수되기 쉽기 때문에 동화 전략을 사용하는 이민자들의 적응 수준이 높았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홍콩으로 이민온 중국여성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전략과 적응 간의 관계를 연구한 Fung(2005)에서는 동화를 사용하는 여성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 가장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였고, 분리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였으며 통합과 주변화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중간 정도의 적응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Fung(2005)은 홍콩 사회는 다문화사회와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홍콩 주민들은 이민자에게 홍콩사회에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연구대상인 홍콩으로 이민 온 중국 여성들 대부분이 홍콩과 인접한 광둥지방 출신으로 홍콩사람들이 사용하는 광둥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홍콩 문화와 매우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홍콩 사회에 흡수되기 쉽기 때문에, 동화 전략을 사용하는 이민 여성들의 적응 수준이 가장 높았다고 해석하였다.

Kosic(2002)과 Fung(2005)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주류사회는 이주자에게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흡수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주자는 주류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문화적응전략으로 동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통합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적응적이거나 유사한 적응 수준을 보이고, 분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변화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적응적이지 않거나 유사한 적응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중 한국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조선족 유학생과 같은 국적은 가졌지만 한국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한족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한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단일민종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다양성이나 차이에 대한 인정보다는 단일민족 의식이나 단일화를 강조하고 이주자에 대해 동화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의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임지현 외, 2000; 정진경, 양계민, 2004). 이러한 한국사회의 태도 및 분위기는 전술한 연구들에서의 이탈리아와 홍콩 사회의 태도 및 분위기와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중국조선족은 2003년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함께 동포에 포함되었고, 수적인 면에서 재외동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련이나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과 달리 한글과 한국어를 사용하여 왔으며, 한국과 유사한 명절 및 민속놀이를 지키고 명절에 한복을 입으며 한국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등 한국문화 및 전통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김희자, 2010; 이해웅, 2010; 장윤수, 2006) 한국사회에 쉽게 동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주자에 대해 동화되기를 기대하는 한국사회에서 한국 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이 동화 전략을 사용할 경우 매우 적응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분리 전략을 사용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매우 적응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한국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 중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같이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고 주변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중국유학생의 적응에 대한 지표로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을 사용하였다. 유학생의 경우 높은 우울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이기 쉽고(Furukawa, 1997; Lin & Yi, 1997), 그동안의 국내외 다수의 유학생 대상 연구들에서 적응 지표로 정신병리적 관점에서 우울과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심리적 안녕감

을 사용하여 왔다(김소정, 송하나, 2011; 소명, 2013; 진미진, 조유진, 2011; 진민진, 배성만, 현명호, 2011; 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Reilly, Ryan, & Hickey, 2010; Sumer, Poyrazli, & Grahame, 2008; Tananuraksakul & Hall, 2011; Wei, Heppner, & Mallen,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화를 사용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과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고, 분리를 사용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주변화를 사용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과 유사하거나 또는 더 낮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과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고 주변화를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60.9%(52,313명)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를 사용하는 것이 통합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심리적 안녕감과 더 낮은 우울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분리를 사용하는 것이 주변화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혹은 더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더 높은 우울을 보일 것이다.

가설 2-1: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낮은 우울을 보일 것이다.

가설 2-2: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주변화를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높은 우울을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인천, 충청, 강원 지역의 1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한족과 중국조선족 유학생과 언어연수생 225명이었다. 연구참가자 중 중국한족 유학생은 162명(72.0%), 중국조선족 유학생은 63명(28.0%)이었고, 남자가 108명(48.0%), 여자가 117명(52.0%)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20~40세이었고 평균연령은 25.1세(표준편차 3.6세)이었다. 학력을 보면 언어연수 7명(3.1%), 학부과정 103명(45.8%), 석사과정 81명(36.0%), 박사과정 32명(14.2%), 박사후 과정 2명(0.9%)이었으며, 체류기간은 6개월 미만 14명(6.2%), 6개월~1년 미만 25명(11.1%), 1년~2년 미만 62명(27.6%), 2~3년 미만 34명(15.1%), 3년~5년 미만 60명(26.7%), 5년 이상 30명(13.3%)이었다.

연구도구

문화적응전략 척도

김재우(2005)에서 사용한 문화적응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김재우(2005)가 채정민,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2002)이 개발한 문화적응전략척도에서 10문항, 허춘영과 김광

일(1997)의 연구에서 5문항을 발췌하고, 예비 조사를 통하여 얻은 5문항을 추가하여 개발한 총 20문항으로 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한국 문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성(한국문화수용)을 측정하는 10문항과 모국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성(모국문화유지)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김재우(2005)에서 한국 문화수용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는 .80이었고, 모국문화유지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7과 .72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전략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김재우, 2005; 송원영, 리난, 2008; Pfaffertott & Brown, 2006)에서 사용한 방법을 적용하여, 문화적응전략 척도의 두개 하위척도인 한국문화수용과 모국문화유지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중앙치 이하와 중앙치 초과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국문화 수용과 모국문화 수용이 모두 초과인 경우를 통합유형으로, 한국문화 수용은 초과이고 모국문화 수용은 이하인 경우를 동화유형으로, 한국문화 수용은 이하이고 모국문화 수용은 초과인 경우를 분리유형으로, 한국문화 수용과 모국문화 수용이 모두 이하인 경우를 주변화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자아수용(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7문항), 자율성(8문항), 환경에 대한 통제(8문항), 삶의 목적(7문

항), 개인적 성장(8문항)의 6개 하위요인, 총 46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명소 등(2001)에서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66 ~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 는 자아수용 .61, 긍정적 대인관계 .76, 자율성 .61, 환경에 대한 통제 .64, 삶의 목적 .74, 개인적 성장 .65로 나타났다으며 전체 심리적 안녕감의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

Radloff(1977)가 제작한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긍정적인 문항 4개, 부정적인 문항 16개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주일에 우울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를 '전혀 아니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였고 우울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더 우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구와 이민규(1992)에서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11년 3월에 약 4주 동안 실시되었고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으로 분석하였는데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문화적응전략(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과 민족유형(중국조선족, 중국한족)이 심리적 안

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는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표 2에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문화적응전략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3, 217)=3.02, p < .05$), 사후검증 결과 주변화보다 동화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그러나 민족유형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 217)=0.44, p > .05$).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 217)=2.78, p < .05$). 이는 문화적응전략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민족

표 1.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화적응전략	민족유형	n	평균	표준편차
통합	중국한족	28	164.11	14.61
	중국조선족	9	148.89	12.96
	전체	37	160.41	15.53
동화	중국한족	25	157.12	17.20
	중국조선족	24	162.63	19.88
	전체	49	159.82	18.58
분리	중국한족	62	155.48	14.66
	중국조선족	6	160.17	16.25
	전체	68	155.90	14.74
주변화	중국한족	47	152.26	15.27
	중국조선족	24	150.08	16.12
	전체	71	151.52	15.48
전체	중국한족	162	156.29	15.61
	중국조선족	63	155.65	18.04
	전체	225	156.11	16.29

표 2.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artial η^2
문화적응전략(A)	2271.94	3	757.31	3.02*	.04
민족유형(B)	109.39	1	109.39	0.44	.00
(A)×(B)	2092.95	3	697.65	2.78*	.04
집단내	54432.92	217	250.84		
전체	5542833.00	225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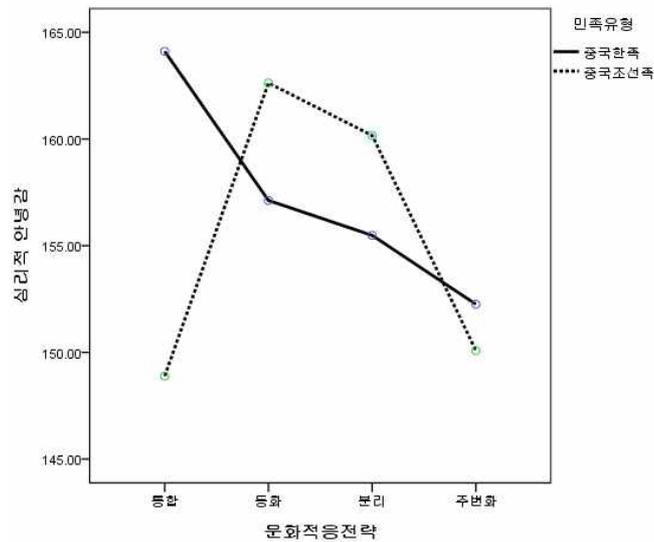


그림 1.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의 상호작용

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양상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을 보면,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 분리, 주변화, 통합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지만,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문화적응전략 중 동화, 분리, 주변화에서는 중국조선족 유학생과 중국한족 유학생이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통합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에서 가장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에서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

표 3.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에 따른 우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화적응전략	민족유형	n	평균	표준편차
통합	중국한족	28	9.54	8.82
	중국조선족	9	23.89	10.81
	전체	37	13.03	11.10
동화	중국한족	25	13.08	8.81
	중국조선족	24	15.42	8.57
	전체	49	14.22	8.68
분리	중국한족	62	13.27	7.89
	중국조선족	6	17.17	8.86
	전체	68	13.62	7.99
주변화	중국한족	47	15.30	9.77
	중국조선족	24	18.79	9.29
	전체	71	16.48	9.69
전체	중국한족	162	13.19	8.89
	중국조선족	63	18.08	9.41
	전체	225	14.56	9.29

였다. 표 3에는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에 따른 우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표 4에는 우울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우울에 미치는 문화적응전략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F(3, 217)=1.03, p > .05$], 민족유형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 217)=15.47, p < .001$]. 이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이 중국한족 유학생에 비해 우울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우울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artial η^2
문화적응전략(A)	244.97	3	81.66	1.03	.01
민족유형(B)	1222.31	1	1222.31	15.47***	.07
(A)×(B)	725.40	3	241.80	3.06*	.04
집단내	17150.49	217	79.04		
전체	66981.00	225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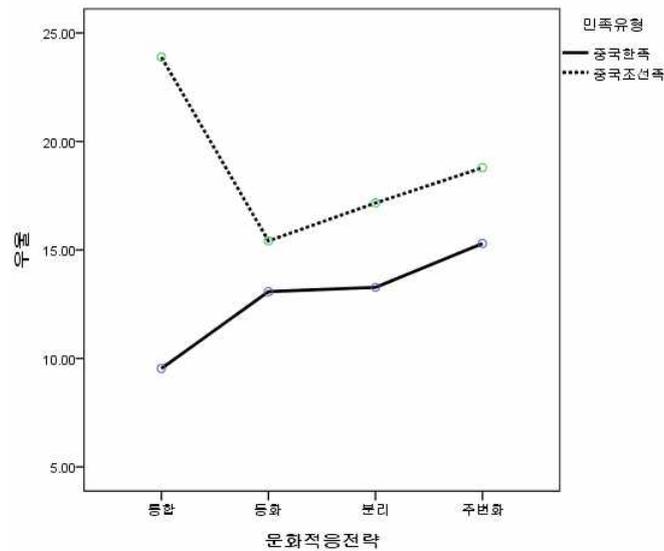


그림 2. 우울에 미치는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의 상호작용

또한 우울에 미치는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3, 217)=3.06, p < .05$]. 이는 문화적응전략에 따른 우울 수준이 민족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양상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 분리, 주변화, 통합 순으로 우울이 낮았고,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순으로 우울이 낮았다. 문화적응전략 중 동화, 분리, 주변화에서는 중국조선족 유학생과 중국한족 유학생이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통합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에서 가장 높은 우울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한족의 경우 통합에서 가장 낮은 우울을 보여주고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문화적응전략에서 통합을 사용하는 이주자들이 가장 적응적으로 나타난 연구들과 달리, 주류사회의 사람들이 이주자들에게 동화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주자들이 주류사회와 유사한 문화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동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 추론을 한국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조선족 유학생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한족 유학생을 대비하여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우울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즉 심리적 안녕감과 달리, 우울에서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이 중국한족 유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

였다. 이렇게 조선족 유학생이 한족 유학생보다 더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 중국 조선족 유학생의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와 지지집단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고운(2001)에 따르면 중국조선족은 한족과 달리 한국에 오기 전 자신이 한국민족과 같은 조선족이므로 한 민족으로서의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조선족은 한국인과 동등하지 않으며 열등하다는 한국사회의 조선족에 대한 태도와 시각을 인식하면서 좌절과 차별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적된 차별감이 우울 증가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민진 등(2011)에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중국한족 유학생 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 수에 비해 월등히 많고 유학생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이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정서적 지지도 경험한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유학생은 그 수가 적고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동족 유학생끼리의 모임을 잘 갖지 않으며(허춘영, 1998), 이는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지지가 우울 증가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수진과 한규석(2009)에서 확인된 바 있다.

둘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후분석 결과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를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우울을 보였고,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이며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었다는 Fung(2005)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며,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역시 대다수 문화적응전략 연구(서선자, 2010; 손한나, 이영호, 2011; Berry & Sabatier, 2009; Kosic, Mametti, & Sam, 2006 등)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를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우울을 나타낸 것은 Kosic(2002)과 Fung(2005)이 언급한대로 주류사회의 사람들이 이주자들에게 동화를 기대하고 있고 이주자들이 주류사회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경우 주류사회에 수용되기 쉽기 때문에 가장 적응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이 부족하여 이주자를 차별하고 동화를 강요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정진경, 조정아, 2008), 구성원들이 매우 동질적인 사회로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다(정진경, 양계민, 2004). 그러나 한국 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이 적극적으로 동화를 사용할 때 한국 사람들이 중국조선족 유학생을 단순히 외국인을 대하듯이 배타적이고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질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한국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화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외국인으로 대할 것이므로 자신의 정체성에 일정부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우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전략과 민족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후분석 결과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동화를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였고,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에서 보여준 양상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며 동화를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인 Fung(200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고,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전술한 대다수 문화적응전략 연구 결과들(서신자, 2010 등)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서 문화적응전략이 미치는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 것과 달리,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통합을 사용할 때와 주변화를 사용할 때 거의 차이가 없었다. 우울에서는 통합을 사용할 때 주변화를 사용할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것은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 보다는 우울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분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합을 사용할 때 우울이 가장 높고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낮았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로 통합을 사용하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Bourhis 등(1997)에 따르면 주류사회가 이주자들에게 동화되기를 바라는데 이주자들이 통합을 사용할 경우, 주류사회의 사람들과 이주자들 간에 소통이 단절되고, 상대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생기고 이주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주자들에게 스트레

스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이주자들에게 한국사회에 동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한국민족과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조선족을 동포라고 생각하며 동화되기를 더 많이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중국조선족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수용하는 한편 한국인과 다른 문화인 중국 문화를 유지할 경우 내집단 편애가 강한 한국인들에게 거리감을 유발시키고 이것은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중국조선족 유학생이 중국인과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와 정체성을 모두 나타낼 경우 이것은 오히려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국한족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사회에 적극 동화하려는 욕구가 적고 공부만 마치고 돌아가면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허춘영, 1998) 한국인들 역시 중국한족 유학생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한국사회에 동화되기를 기대하는 태도가 적기 때문에 통합이 가장 적응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그 동안의 대부분의 문화적응 연구에서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나 유학생을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도 유학생들에게 통합유형을 권장하도록 설계되어왔다(Berry, 1997).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류사회의 이주자에 대한 기대와 이주자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 프로그램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즉 한국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과 주변화의 사용이 적응적이지 않고 동화를 사용

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므로, 본국 문화의 유지를 지양하고 한국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한국문화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돕도록 프로그램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중국한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고 주변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지 않으므로,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에 따른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은 중국한족 유학생이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58.6%(50,34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2.3%(1,970명)로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중국한족 유학생을 제외하면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개입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류사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프로그램도 요구된다(정진경, 조정아, 2008).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중국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통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다문화주의적 관점 부족과 이주자에게 동화를 기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경과 조정아(2008) 및 김혜숙 등(2011)도 한국사회가 강한 내집단 편애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다문화주의적 관점이 부족하므로 문화간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들이 문화를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자세나 태도를 학습하고, 타문화가 자신의 문화와는 다르지만 현실을 구성하는 동등한 문화이며 문화가 복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의 세계관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연구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사용하였고 민족별 연구대상자 수 및 성별, 연령, 학력에서 변인이 비교적 큰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일정 정도 제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사용하고 연구대상자 수,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외생변수를 통제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경수영, 장수미 (2010).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399-421.

교육부 (2013). 2013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www.moe.go.kr/web/100099/ko/board/view.do?bbsId=350&boardSeq=50887&mode=view>.에서 2013, 12, 20 인출.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40.

김민선, 석분옥, 박금란, 서영석 (2010).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및 신체화의 관계: 부정적완벽주의와 적응적완벽주의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725-745.

김소정, 송하나 (2011). 재한 중국유학생의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219-234.

- 김재우 (200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 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김후조 (201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낙관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자 (2010). 중국 연변 조선족 생활문화 연구 - 문화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5, 5-41.
- 노고운 (2001).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한국내 조선족 노동자의 삶과 적응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선자 (2010). 재한 일본인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명 (2013).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한나, 이영호 (2011). 유학생의 자기 결정적 동기, 문화적응, 정신건강의 관계. 인격교육, 5(1), 83-107.
- 송원영, 리난 (200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59-173.
- 이해웅 (2010). 다문화제도화의 포함 배제논리와 조선족-중국동포의 위치성. 미드리, 2, 6-17.
- 임수진, 한규석 (2009).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413-427.
- 임지현 외 (2000).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 장윤수 (2006). 중국조선족 문화생활과 민족문화. 한국동북아논총, 39, 97-117.
- 장준량 (2009).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및 정서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 한수경, 양남영, 유명란, 고은자, 김희경, 임경춘, 이미라, 손연정 (2010).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 성인간호학회지, 22(6), 653-662.
- 전점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연구 1. 한국심리학회 92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37-444.
- 정진경, 김재우 (2005). 차별지각, 차별에 대한 대처전략과 문화적응유형의 관계: 재한 중국인 유학생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295-321.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정진경, 조정아 (2008). 새터민과 남한주민을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487-518.
- 진결 (2010). 중국유학생의 외로움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경, 조유진 (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4), 77-89.
- 진미진, 조유진 (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

- 응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4(4), 77-89.
- 진민진, 배성만, 현명호 (2011).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83-797.
- 채정민,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2002). 북한 이탈주민용 문화적응 전략적도 개발. *한국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2002년 동계학술대회*, 85-94.
- 최금해 (2008).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1), 115-138.
- 허춘영 (1998).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실태: 한족, 조선족 유학생간의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해연 (2007).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s.), *Acculturational theories, models and findings*. Boulder, CO: Westview.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79-712.
- Berry, J. W.,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Dasen, J. W. Berry, & N. Sartorius (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pp.207-.236). Newbury Park: Sage.
- Berry, J. W., & Sabatier, C. (2010) Acculturation, discrimination, and adaptation among second generation immigrant youth in Montreal and Par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3), 191-207.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 Bourhis, R., Moise, C., Perrault, S., & Senecal, S. (1997). Towards an 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6), 369-386.
- Chen, H., Mallinckrodt, B., & Mobley, M. (2002). Attachment patterns of East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nd sourc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oderators of the impact of U.S. racism and cultural distress. *Asian Journal of Counseling*, 9(1-2), 27-48.
- Constantine, M. G., Okazaki, S., & Utsey, S. O. (2004). Self-concealment, social self-efficacy,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in African, Asian, and Latin American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3), 230-241.
- Curran, M. J. (2003). *Across the water. The acculturation and health of Irish people in London*. Dublin: Trinity College, Psychology Department.
- Fung W. (2005). *A study of acculturation, cop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ew immigrant women from mainland Chin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 Furukawa, T. (1997). Depressive symptoms among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s, and their predictor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6(4), 242-246.

- Kosic, A. (2002). Acculturation attitudes, need for cognitive closure, and adaptation of immigra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2), 179-201.
- Kosic, A., Mannetti, L., & Sam, D. L. (2005). Self-monitoring: A moderating role between acculturation strategies and adaptation of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2), 141-157.
- Kunst, J. R., & Sam, D. L. (2013).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cculturation expectations and Muslim minority youth's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7*(4), 477-490.
- Li, A., & Gasser, M. B. (2005). Predicting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sociocultural adjustment: A test of two mediation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5), 561-576.
- Lin, J-C. G., & Yi, J. K. (1997).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Issues and program suggestions. *College Student Journal, 31*(4), 473-479.
- Misra, R., & Castillo, L. G. (2004). Academic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Comparison of American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1*(2), 132-148.
- Mori, S. (2000). Addressing the mental health concern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2), 137-144.
- Pfafferott, I., & Brown, R. (2006). Acculturation preferences of majority and minority adolescents in Germany in the context of society and famil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6), 703-717.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affaelli, M., Torres Stone, R. A., & Iturbide, M. I. (2007). Acculturation, gender, and alcohol use among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32*(10), 2187-2199.
- Reilly, A., Ryan, D., & Hickey, T. (2010).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of short-term international students in Ireland.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1*(5), 584-598.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umer, S., Poyrazli, S., & Grahame, K. (2008).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6*(4), 429-437.
- Tananuraksakul, N., & Hall, D. (2011). International students' emotional security and dignity in an Australian context: An asp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2), 189-200.
- Wei, M., Heppner, P. P., & Mallen, M. J. (2007). Acculturative stress, perfectionism,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85-394.
- Yeh, C. J., & Inose, M. (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6(1), 15-28.
Zheng, X., Sang, D., & Wang, L. (2004).
Accultur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hinese students in Austral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1), 57-72.

논문 투고일 : 2014. 01. 06

1 차 심사일 : 2014. 01. 20

게재 확정일 : 2014. 02. 22

The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on, ethnic grou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Jin Xian Yu

Sang Yup Choo

Sung Moon L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some studies regarding acculturation strategies developed Berry(1997), not the preference for integration, but the preference for assimilation showed the best adjustmen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the majority of studies. For the reason of these results, we supposed that when the people of the host society expect the minority members to be assimilated to the host society and the minority members have very similar culture to the host society, the preference for assimilation in the minority members would show the best adjustment. And we tested this hypothesis with Korean-Chinese who had very similar culture to Korean culture and Han-Chinese who had very different culture from Korean culture. For two hundred and twenty five students(63 Korean-Chinese and 162 Han-Chinese), we asked them to complete a questionnaire including Acculturation Strategies Scale,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and Depression Inventory. Data from the survey were analysed using two-way ANOVA. As a result, the interaction effect of acculturation strategies and ethnic types affected both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In details, for Korean-Chinese students, the preference for assimilation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lowest levels of depression, but the preference for integration showed the lowest level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highest levels of depression. For Han-Chinese students, the preference for integration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lowest levels of depression, and the preference for marginalization showed the lowest level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highest levels of depression. We discussed the meanings of the results, implications, and interventions to help chinese students adjust Korean society.

Key words : Acculturation strategies, ethnic type,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